

보도시점 2023. 11. 3.(금) 12:00 배포 2023. 11. 3.(금) 9:00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분석

- '21년 경북 청년(19~34세) 순유출(9천명)의 78.8%는 수도권, 주된 전출사유는 직업(56.9%)
- '16년 기준 20대 경북 청년 중 '21년 수도권 전출 청년은 취업자 비중(8.3%p), 상시근로자 비중(4.6%p), 대기업·중견기업 근무 비중(4.8%p), 연간 임금근로소득 '5천만원이상' 비중(3.9%p)이 높고, '21년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배우자가 있는' 비중(9.5%p), '자녀가 있는' 비중(11.3%p), '아파트 거주' 비중(19.9%p)이 높음
- '15년 기준 20대 경북 청년 중 '20년 수도권 전출 청년은 '대학원 이상' 비중(6.5%p),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비중(17.6%p), 전월세 비중(39.9%p)이 높음

저출산 및 인구유출로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지역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역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북지방통계청(청장 송성헌)은 경상북도의 청년 인구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청의 청년통계등록부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하여 지역 청년의 수도권 전출 현황 및 생활상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결과, '21년 경북의 19~34세 청년인구는 '16년 대비 12.8% 감소한 425천명이며 청년인구 비중(16.6%)은 광역도 전체(18.8%)보다 2.2%p 낮았다. '21년 타시도로 순유출된 청년인구는 9천명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78.8%를 차지하였다. 수도권으로 전출 사유는 직업(56.9%), 교육(15.2%), 가족(14.8%) 순이었다.

'16년 경북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 5년 후('21년) 경북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결과, '21년 취업자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90.7%)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82.4%)보다 8.3%p 높았고, 상시근로자 비중도 수도권 전출 청년(85.2%)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80.6%)보다 4.6%p 높았다.

* 16년 주소지가 대구인 20대 청년 중 '21년 주소지가 대구인 청년과 수도권인 청년 비교(청년통계등록부 활용)

‘21년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중견기업 근무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25.1%)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20.3%)보다 4.8%p 높고,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근로소득은 ‘5천만원 이상’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21.9%)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18.0%)보다 3.9%p 높았다.

‘21년 청년 취업자의 상위 5개 산업을 보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나고, 교육 서비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났다.

‘21년 ‘배우자가 있는’ 청년과 ‘자녀가 있는’ 청년의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이 수도권 전출 청년보다 각각 9.5%p, 11.3%p 높았다. 여성의 양육 자녀수도 경북 계속거주 청년(1.56명)이 수도권 전출 청년(1.37명)보다 0.19명 많았다.

‘21년 주거 유형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아파트(19.9%p), 단독주택(7.9%p)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 전출 청년은 기타거처*(15.1%p), 오피스텔(12.6%p) 비중이 높았다.

* 기타거처: 연립·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 포함

또한, ‘15년 경북에 거주한 20대 청년 중 5년 후(‘20년) 경북에 계속 거주한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의 생활상을 비교*한 결과, ‘20년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10.3%)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3.8%)보다 6.5%p 높았다.

* ‘15년 대구 거주 20대 청년 중 ‘20년 거주지가 대구인 청년과 수도권인 청년 비교(인구주택총조사 활용)

‘20년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39.6%)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22.0%)보다 17.6%p 높았으며, ‘기능원 및 장치기계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 및 기타’에서는 경북 계속거주 청년이 각각 14.7%p, 5.1%p 높았다.

‘20년 주거 점유형태를 보면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자기집 비중(38.1%p)이 높고, 수도권 전출 청년은 전세(23.5%p), 월세(16.4%p) 비중이 높았다.

【붙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분석 1부.

담당 부서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책임자	과 장	서동훈 (053-609-6651)
		담당자	팀 장	안상건 (053-609-6652)
		담당자	주무관	조상우 (053-609-6663)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분석

2023. 11.



동북지방통계청
지 역 통 계 과

일 러 두 기

□ 분석 방법

- 인구이동은 주민등록자료를 기반으로 19~34세의 경북 거주 내국인 청년 대상 분석('16, '21)
- '16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16, '21 패널분석)하여 '16년 경북 거주 청년(20~29세) 중 5년 후('21년) 경북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 간의 생활상을 비교
- '15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 '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5년 전 거주지)하여 '15년 경북 거주 청년(20~29세) 중 5년 후('20년) 경북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 간 비교

□ 주요개념 및 용어 정의

- 청년 :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한 19~34세 인구
- 전입 : 시도를 넘어 다른 지역에서 특정 지역으로 이동
- 전출 : 시도를 넘어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순이동 : 전입인구와 전출인구의 차이(전국의 순이동은 0)
 - 순유출(전출초과) :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경우
- 기업체 규모(주된 일자리)

구분	설명
대기업	상출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기타대기업(기업집단 중 상출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중견기업에 미포함된 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 초과,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기업과 소기업 기준 매출액인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에서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면서, 업종별 종사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해당 기업
기타제외	산업대분류가 null, 공공·국방·사회보장행정(O), 가구내고용활동(T), 국제·외국기관(U), 비영리기업 및 매출액 없음

* 기업체 규모는 통계청의 기업통계등록부 정의에 따라서 분류

□ 활용자료 및 기준시점

자료명	기준시점	분석 항목	비고
국내인구이동통계	2016, 2021	국내 인구이동 현황 및 전출 사유	
청년통계등록부	2016. 11. 1. 2021. 11. 1.	인구·가구 및 경제적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2020	국내인구이동(20%표본) 학력, 직업, 점유형태	

□ 유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하위 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출 사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기반으로 모든 세대원에 적용
- 청년통계등록부 상 '취업자*'는 개인의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 * 해당 연도에 기간을 불문하고 행정자료에 한 번이라도 일자리가 등록되면 모두 포함
 -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근로소득 신고가 되지 않은 근로자 등 행정자료로 파악이 곤란한 대상은 취업자에서 제외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자'와는 기준 및 포괄범위가 다름에 유의
- 청년통계등록부상 종사상지위는 타 조사통계의 기준과 다름

코 드	설 명
1 (상시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근로자
2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일용근로 내역이 신고된 근로자
3 (자영업자)	사회보험 및 과세자료에서 대표자나 사업자로 신고된 자

□ 본 자료는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db>)에 게시 예정임

목 차

I. 경북 청년(19~34세) 현황 및 이동

☐	경북 청년인구 현황	1
☐	청년인구 이동	1
☐	청년의 수도권 진출 현황	2
☐	청년의 수도권 진출 사유	2

II. '16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진출 청년 비교

1. '16년 경북 20대 청년의 5년 후 거주지 변화 3

2. 일자리

☐ 취업자 및 종사상 지위	3
☐ 근무기업 규모	4
☐ 연간 상시직 임금근로소득	4
☐ 산업	4
☐ 자영업 현황	5

3. 가구 특성

☐ 부모 동거 및 1인 가구 5

☐ 배우자 유무 및 여성의 양육 자녀 수 6

4. 주택 비교

☐ 거처 종류	6
☐ 주택소유 여부	7

Ⅲ. '15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 학력	7
☐ 직업	8
☐ 거처 점유형태	8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생활상 비교 분석



21년 기준
19~34세

청년 현황 및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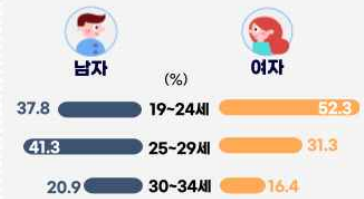
01 청년인구 현황



02 청년인구 이동 (21년 기준)



03 수도권 전출 청년 현황 (21년 기준)



16년 기준
20~29세

'21년 생활상 비교 (청년통계등록부 활용)

04 취업자 및 종사상 지위



05 근무기업 규모



06 산업별 일자리



07 임금근로소득



08 배우자 및 자녀 유무



09 거처종류



16년 기준
20~29세

'20년 생활상 비교 (인구주택총조사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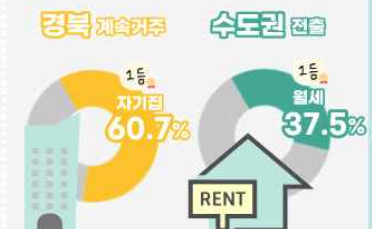
10 학력



11 직업



12 거처 점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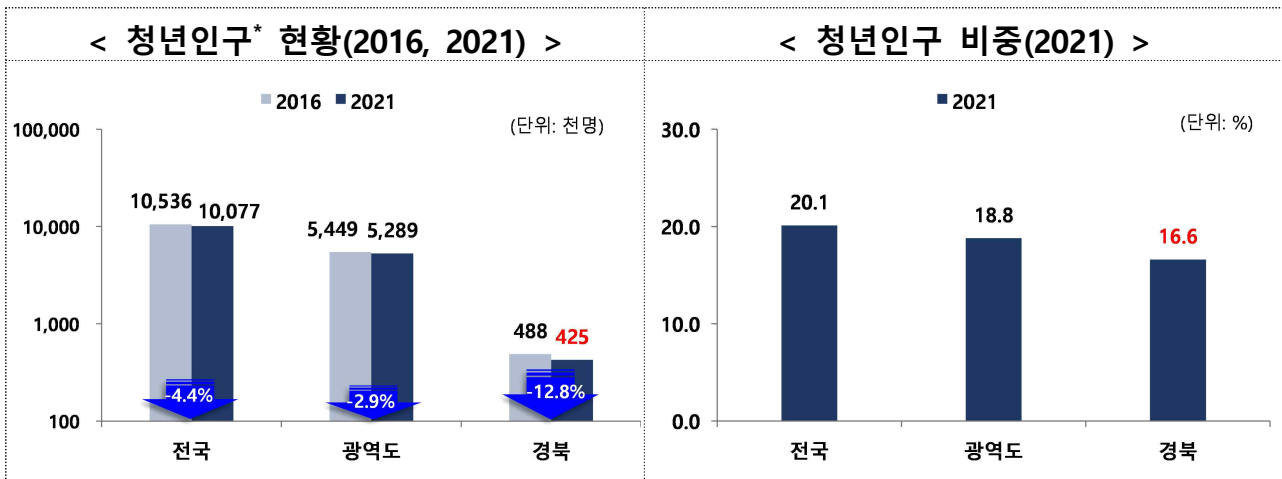


I. 경북 청년(19~34세) 현황 및 이동

인구이동은 주민등록자료를 기반으로 경북의 19~34세 내국인 청년 대상 분석('16, '21)

□ 경북 청년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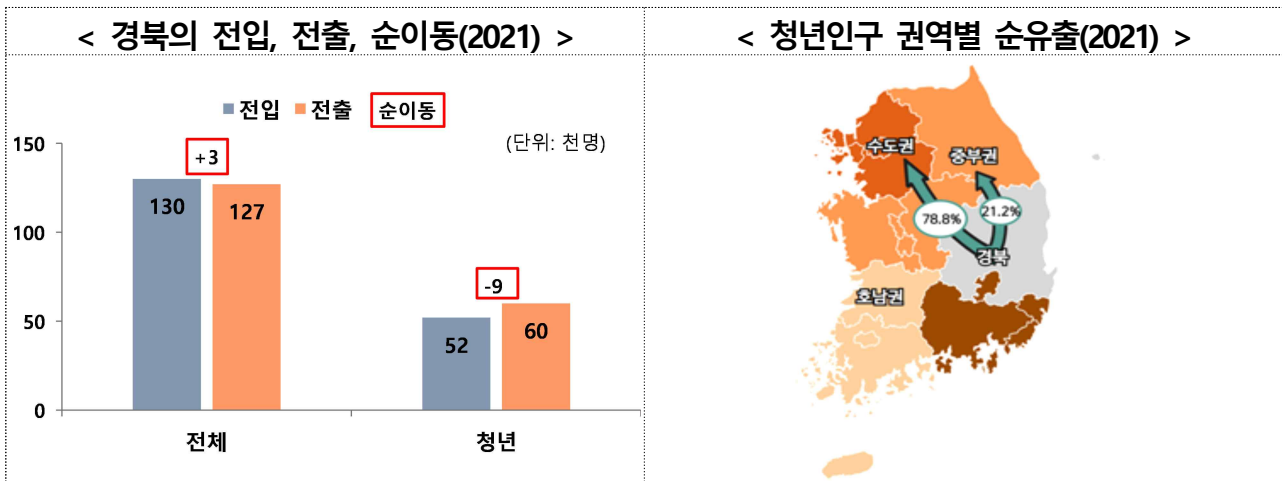
- '21년 경북의 19~34세 청년인구(425천명)는 '16년 대비 12.8% 감소(63천명)하여 경북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
- '21년 경북 청년인구 비중은 전국(20.1%), 광역도 전체(18.8%)보다 각 3.5%p, 2.2%p 낮음



* '16년, '21년 경북에 거주하는 19~34세 내국인 청년

□ 청년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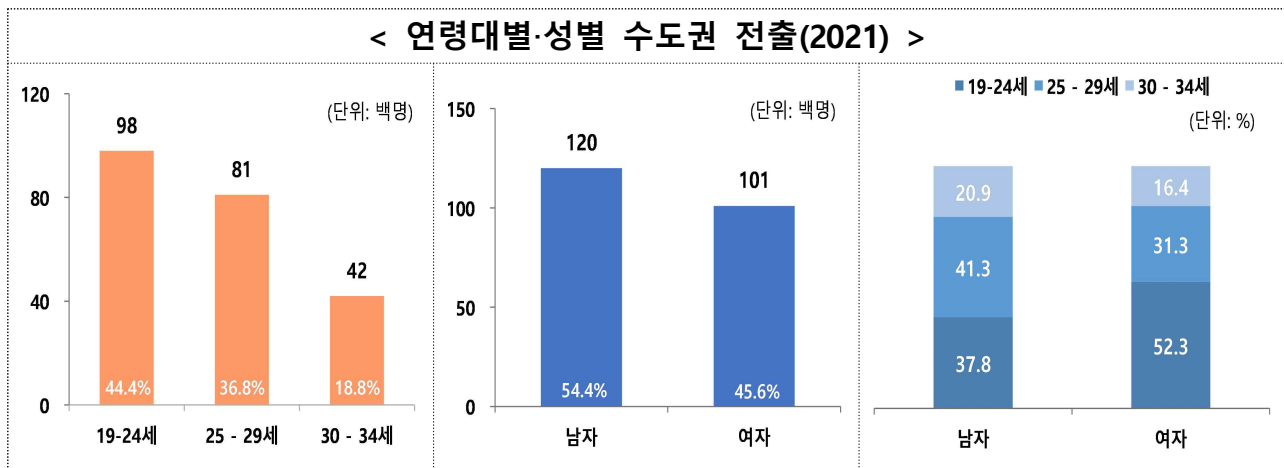
- '21년 경북 청년인구는 전출(60천명)이 전입(52천명)보다 많아 순유출(9천명)이고 경북 전체인구는 전입(130천명)이 전출(127천명)보다 많아 순유입(3천명)
- * 경북의 전입: '21년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주민등록 이전, 경북의 전출: '21년 경북에서 타 시도로 주민등록 이전
- '21년 청년인구의 권역별 순유출을 보면 수도권(78.8%), 중부권(21.2%) 순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중부권(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 호남·제주권(광주·전북·전남·제주), 영남권(부산·울산·대구·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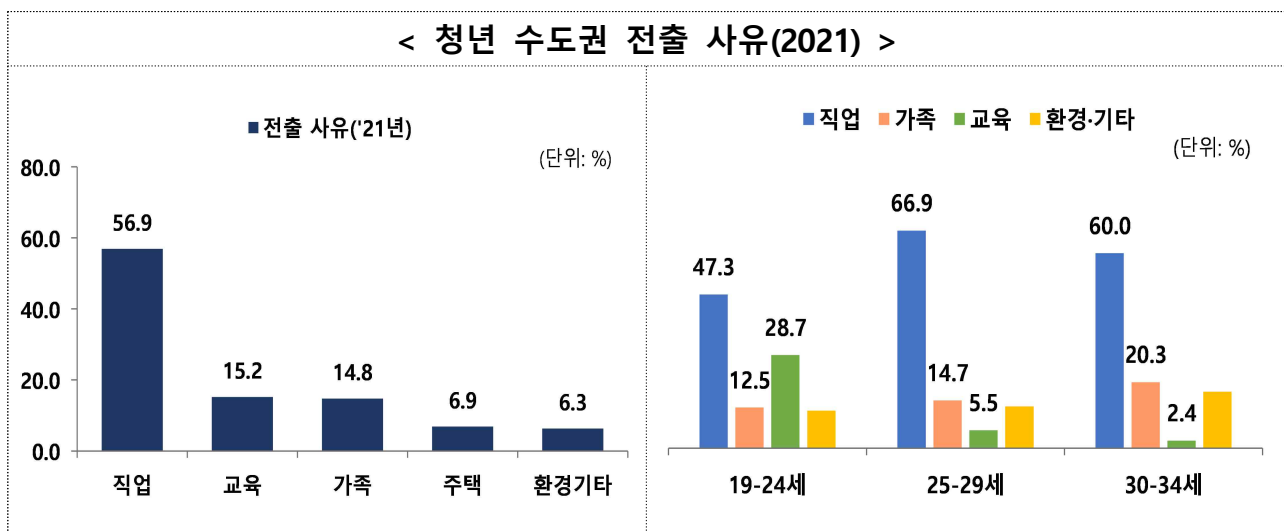
□ 청년의 수도권 진출 현황

- '21년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한 청년은 221백명으로 집계
 - 연령대별로 보면 19~24세(98백명), 25~29세(81백명), 30~34세(42백명) 순으로 진출
 - 성별로는 남자(54.4%)가 여자(45.6%)보다 8.8%p 높음
 - 성별로 진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남자 25~29세(41.3%), 여자 19~24세(52.3%)로 나타남



□ 청년의 수도권 진출 사유

- '21년 경북 청년의 수도권 진출 사유는 직업(56.9%), 교육(15.2%), 가족(14.8%), 주택(6.9%), 환경·기타(6.3%) 순
- 연령대별 진출사유를 보면 19~24세는 직업(47.3%), 교육(28.7%), 25~29세 직업(66.9%), 가족(14.7%), 30~34세 직업(60.0%), 가족(20.3%)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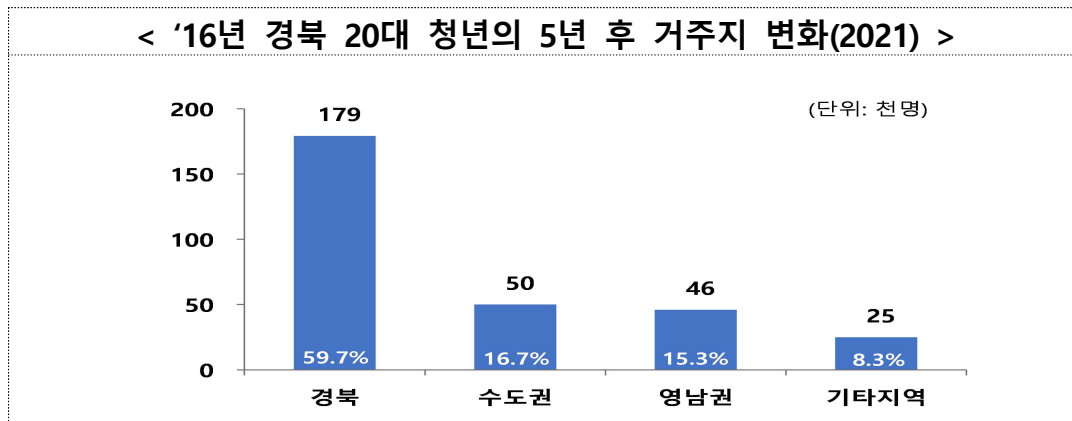


II. '16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청년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16년 경북 거주 청년(20~29세) 중 5년 후('21년) 경북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 간 생활상 비교

1. '16년 경북 20대 청년의 5년 후 거주지 변화

- '16년 경북에 거주한 20대(20~29세) 청년(300천명)의 5년 후('21년) 거주지역은 경북(59.7%), 수도권(16.7%), 영남권(15.3%) 순



2. 일자리

□ 취업자 및 종사상 지위

- '21년 취업자 비중은 경북에 계속 거주한 청년이 82.4%로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90.7%)보다 8.3%p 낮음
 - '16년에는 경북 계속거주 청년(71.5%)이 수도권 전출 청년(66.9%)보다 4.6%p 높았음
- '21년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보면 상시근로자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이 85.2%로 경북 계속거주 청년(80.6%)보다 4.6%p 높음
 - 자영업자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12.0%)이 수도권 전출 청년(11.2%)보다 0.8%p 높음

< 청년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2016, 2021) >

(단위: %, %p)

	2016					2021				
	취업자	계	상시 종사자	일용 근로자	자영 업자	취업자	계	상시 종사자	일용 근로자	자영 업자
경북 계속거주(a)	71.5	100.0	70.1	22.8	7.1	82.4	100.0	80.6	7.4	12.0
수도권 전출(b)	66.9	100.0	59.6	30.6	9.9	90.7	100.0	85.2	3.6	11.2
차이(a-b)	4.6	-	10.5	-7.8	-2.8	-8.3	-	-4.6	3.8	0.8

□ 근무기업 규모

- '21년 청년 취업자의 대기업·중견기업 근무 비중은 수도권 전출 청년(25.1%)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20.3%)보다 4.8%p 높음
- 기타(정부, 비영리단체 등)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이 3.4%p 높음

< 취업자의 근무기업 규모(2016, 2021) >

(단위: %, %p)

	2016			2021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기타(정부, 비영리단체 등)	대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기타(정부, 비영리단체 등)
경북 계속거주(a)	19.9	60.2	19.9	20.3	53.9	25.8
수도권 전출(b)	21.7	59.4	18.9	25.1	52.5	22.4
차이(a-b)	-1.7	0.8	1.0	-4.8	1.4	3.4

□ 연간 상시직 임금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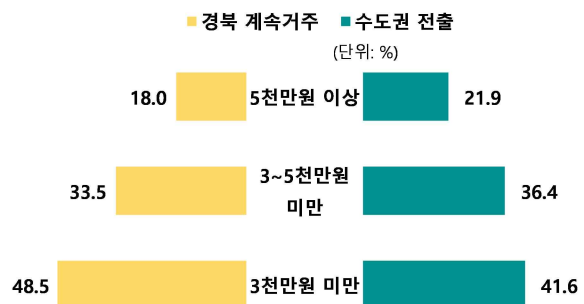
* 1년 미만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임금근로소득 포함

- '21년 상시근로자의 연간 임금근로소득은 '5천만원 이상'에서는 수도권 전출 청년(21.9%)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18.0%)보다 3.9%p 높음
- '3천만원 미만'에서는 경북 계속거주 청년(48.5%)이 수도권 전출 청년(41.6%)보다 6.9%p 높음

< 연간 상시직 임금근로소득(2021) >

(단위: %, %p)

	3천만원 미만	3천~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경북 계속거주(a)	48.5	33.5	18.0
수도권 전출(b)	41.6	36.4	21.9
차이(a-b)	6.9	-2.9	-3.9



□ 산업

- '21년 청년 취업자의 주된 일자리 상위 5개를 산업별(대분류)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유사하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나고,
- 교육 서비스업, 공공 국방·사회보장 행정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의 산업에만 나타남

< 청년 일자리 산업대분류(2021) >

(단위: %)

순위	경북 계속거주		수도권 전출	
	산업분류(대분류)	비중*	산업분류(대분류)	비중*
1	제조업	28.0	제조업	19.7
2	도매 및 소매업	11.8	도매 및 소매업	14.7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4	교육 서비스업	7.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0
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7.1	정보통신업	8.8

* 산업분류(대분류)가 없는 경우 제외

□ 자영업 현황

- '21년 자영업 현황을 보면 수도권 전출 청년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보다 신규창업(8.1%p) 및 폐업(4.8%p) 비중이 높음

< 자영업자 및 창·폐업 현황(2021) >

(단위: %, %p)

	자영업자 비중	계	신규창업	계속사업	폐업
경북 계속거주(a)	12.0	100.0	23.4	66.6	9.9
수도권 전출(b)	11.2	100.0	31.5	53.8	14.7
차이(a-b)	0.8	-	-8.1	12.9	-4.8

* 자영업자 중 신규창업·계속사업·폐업분류가 없는 경우 제외

3. 가구 특성

□ 부모 동거 및 1인 가구

- '21년 부모와 같이 사는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48.1%)이 수도권 전출 청년(20.5%)보다 27.6%p 높음
- '21년 1인 가구 비중은 수도권 거주 청년(48.5%)이 경북 계속거주 청년(18.4%)보다 30.1%p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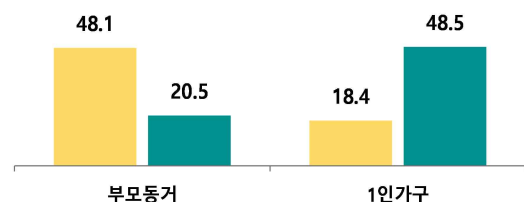
< 부모동거 및 1인 가구(2016, 2021) >

(단위: %, %p)

	2016		2021	
	부모 동거	1인 가구	부모 동거	1인 가구
경북 계속거주(a)	59.9	11.9	48.1	18.4
수도권 전출(b)	43.3	24.7	20.5	48.5
차이(a-b)	16.6	-12.8	27.6	-30.1

■ 경북 계속거주 ■ 수도권 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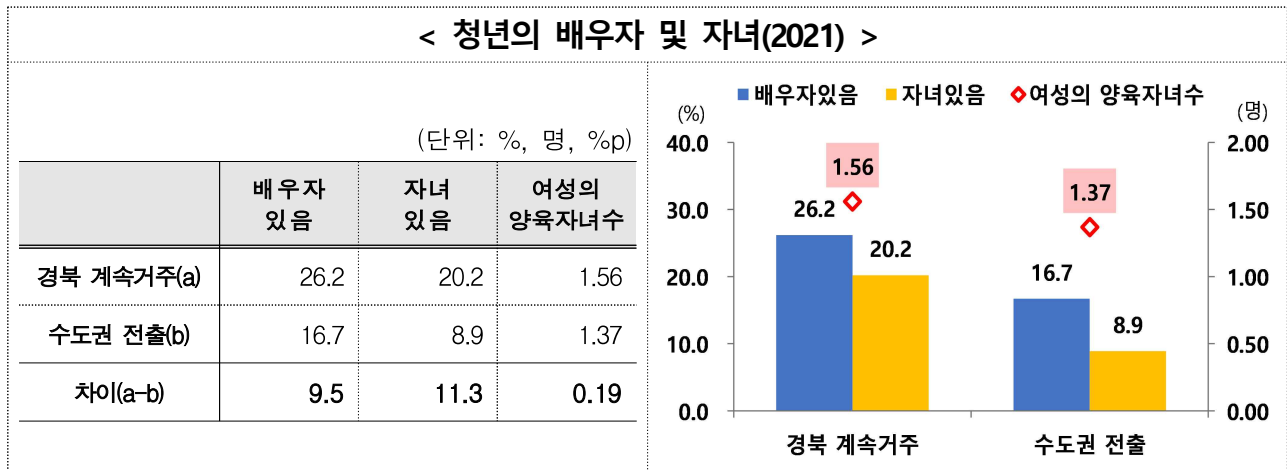
(단위: %)



□ 배우자 유무 및 여성의 양육 자녀 수

- '21년 배우자가 있는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26.2%)이 수도권 전출 청년(16.7%)보다 9.5%p 높음
- '21년 자녀가 있는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20.2%)이 수도권 전출 청년(8.9%)보다 11.3%p 높음
- 여성의 양육 자녀 수*는 경북 계속거주 청년(1.56명)이 수도권 전출 청년(1.37명)보다 0.19명 많음

*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에 한정하여 양육 자녀 수를 평균하여 계산



4. 주택 비교

□ 거처 종류

- '21년 거처 종류를 보면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수도권 전출 청년에 비해 아파트(19.9%p), 단독주택(7.9%p) 비중이 높음
- 수도권 전출 청년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에 비해 기타거처*(15.1%p), 오피스텔(12.6%p) 비중이 높음

* 기타거처: 연립·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 포함

< 거처 종류(2016,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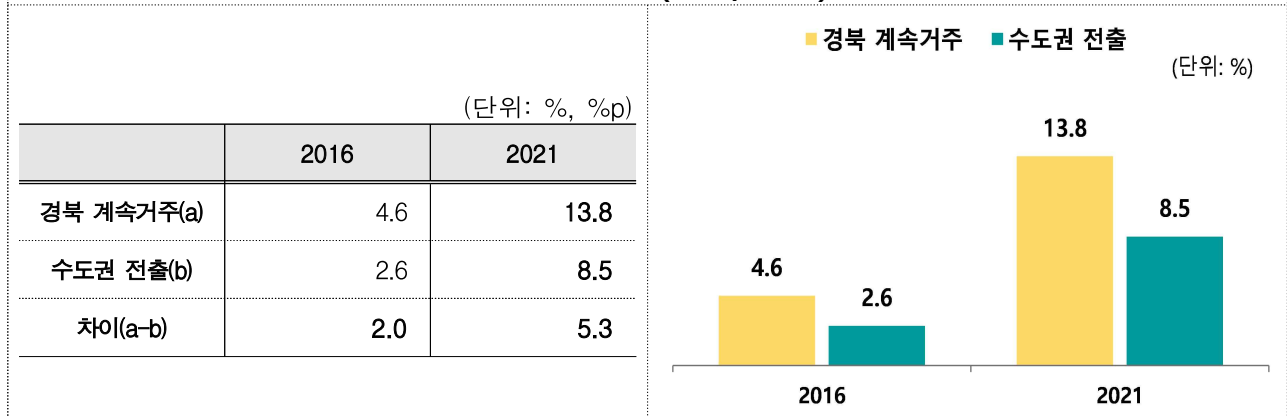
(단위: %, %p)

	2016				2021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단독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거처
경북 계속거주(a)	36.3	41.4	0.4	21.9	32.3	55.4	0.8	11.5
수도권 전출(b)	40.5	27.8	0.5	31.2	24.4	35.5	13.4	26.7
차이(a-b)	-4.2	13.5	-0.1	-9.3	7.9	19.9	-12.6	-15.1

□ 주택소유 여부

- '21년 주택 소유 비중은 경북 계속거주 청년(13.8%)이 수도권 전출 청년(8.5%)보다 5.3%p 높음
- '16년에는 그 차이가 2.0%p이었지만, '21년에는 5.3%p로 격차가 더 커짐

< 주택소유 여부(2016, 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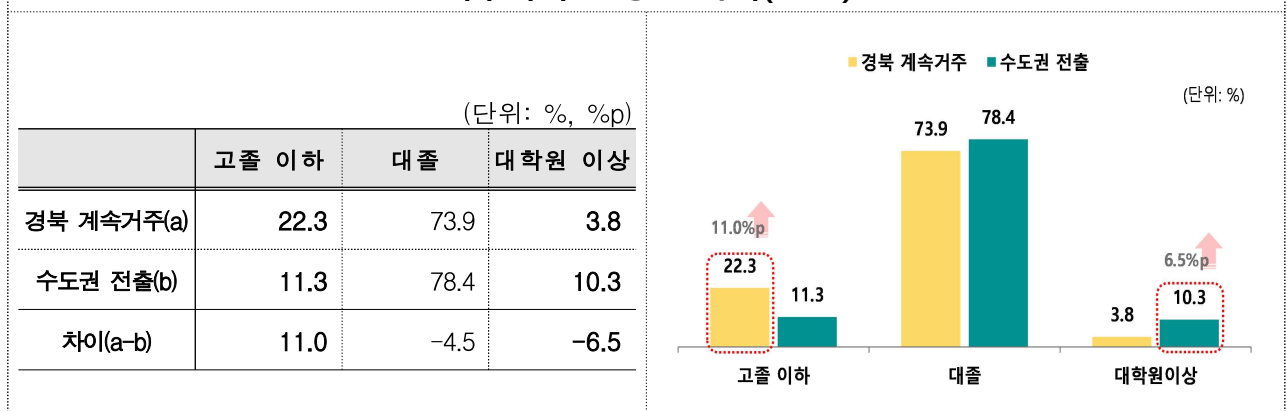
Ⅲ. '15년 20대의 5년 후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여 '15년 경북 거주 청년(20~29세) 중 5년 후('20년) 경북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 간 비교

□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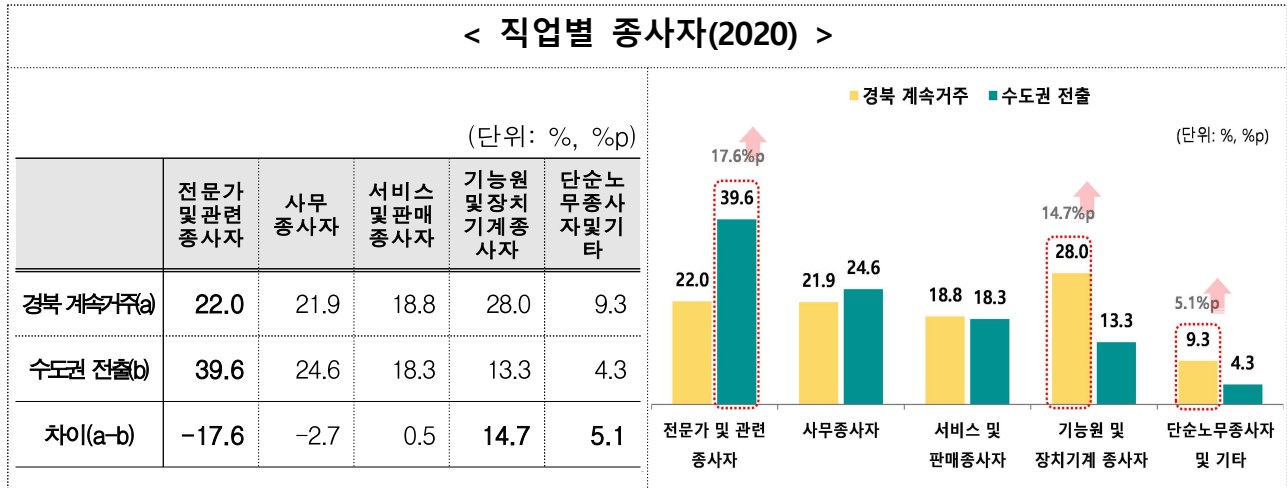
- '20년 학력은 대학원 이상에서는 수도권 전출 청년(10.3%)이 경북 계속 거주 청년(3.8%)보다 6.5%p 높음
- 고졸 이하는 경북 계속거주 청년(22.3%)이 수도권 전출 청년(11.3%)보다 11.0%p 높음

< 거주지역별 청년 학력(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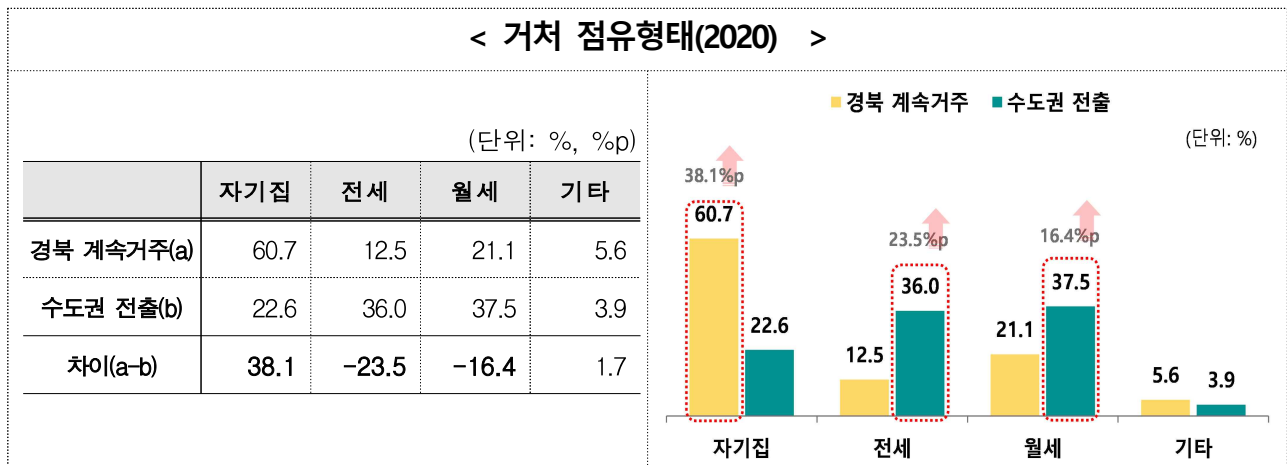
□ 직업

- '20년 직업은 수도권 전출 청년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39.6%)에서 경북 계속거주 청년(22.0%)보다 17.6%p 높음
-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기능원 및 장치기계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및 기타'에서 수도권 전출 청년보다 각각 14.7%p, 5.1%p 높음



□ 거처 점유형태

- '20년 거처 점유형태를 보면 경북 계속거주 청년은 자기집* 비중(38.1%p)이 높고, 수도권 전출 청년은 전세(23.5%p), 월세(16.4%p) 비중이 높음



* 자기집: 현재 살고 있는 집이 같이 사는 가구원 소유인 집